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3, pp. 81-91,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081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 딜레마

김영준[1], 강경숙[2*]
[1]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박사, [2]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A Convergence Dilemma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Young-Jun Kim[1], Kyung-Sook Kang[2*]
[1]Ph.D.,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2]Ph.D.,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이 융합의 차원에서 놓여 있는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체제를 개발하고 실제 이행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 영역의 결과는 분야의 융합 딜레마, 기관의 융합 딜레마, 자격의 융합 딜레마,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 국가행정의 융합 딜레마와 같이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영역은 상호 연계적인 관점과 맥락에 의해 고찰되었다. 연구 내용의 결과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위한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의 역할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결론 및 고찰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 딜레마를 위해 교육의 실천적인 성격과 맥락에 토대하여 평생교육학 범주와 특수교육학 범주 간 융합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타당하게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주제어 :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융합, 딜레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pecifically explore the dilemma posed by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at the point of convergence. Research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consisted of area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upport system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outcome of the area consisted of five things: convergence dilemmas in fields, convergence dilemmas in institutions, convergence dilemmas in eligibility, convergence dilemmas in disability areas, and convergence dilemmas in n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five areas were considered by interlinked views and contex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versity's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including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was concluded and considered with emphasis on strengthening the role functions of the university's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the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cluding the pre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is ideal, it is worth suggesting that the academic identity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established as appropriate based on convergence between the categories of lifelong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based on the practical nature and context of education for the Korean.

Key Words : Korea, Persons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ilemma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Kang (grace86@wku.ac.kr)
Received January 28, 2019 Revised March 6,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기반의 특수교육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수준에서나마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강조되어 온 시점은 개정 「평생교육법」이 마련된 2017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1]. 평생교육을 법적 수준에서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자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몇몇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을 실제로 부여하기 때문이다[2]. 하지만, 이러한 공식화된 기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일반 평생교육 분야에 비해 직접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이나 현실 가능성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단적으로 어떠한 기관과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실천되어야 하는가의 적용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이다[3].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제한된 실정 가운데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적용방안이 마련되려는 움직임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개 뚜렷한 이해관계의 결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해관계의 혼란이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장애인의 교육적 상황을 위해 특수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의 실천적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타당하게 정립하지 못하는 맹점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의 실천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1]. 이런 측면에서,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딜레마를 여러 구성요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딜레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을 촉구하고 합리적으로 통섭할 학문적인 정체성과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결과로 연결된다[2,4].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학문적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상기하여 볼 경우 교육학의 분야교육에 해당하는 평생교육학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애의 여부에 따라서 학습 대상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 역시 이런 결론의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경향이 높으며, 학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경향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5-6]. 하지만, 평생교육학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 위상과 정체성을 전적으로 모색하는 부분은 완전하고 분명한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7]. 현행 평생교육 분야의 범주와 융합된 절차 관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체제가 실천되기 어려운 점은 장애의 특수성을 교육과정의 운영 기반 안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다소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3]. 즉, 현행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교육 내용 지식 및 기술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이런 전문 내용 기반이 장애인의 장애 특수성에 따라 상호 변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이차적인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8-9]. 또한, 현행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하는 평생교육사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의 특수성과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 간 정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실제로 담보하고 있지 못한 일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10]. 종합컨대,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학 안에서 정립되어야 할 학문적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학의 실천적 맥락 및 성격과 융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딜레마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입장에서 현행의 평생교육학 분야가 구축해 놓은 교육과정 내용 기반이나 전문인력 자격 등의 절차와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딜레마는 다양한 토대에 의한 요인들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학의 한 가지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타당성 제고를 비롯하여 타 인접 분야와의 이해관계상 혼란 및 중복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부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1-13]. 이외에 다른 딜레마와 관련된 요인은 위의 주된 요인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활발한 노력이 일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토대와 범주를 타당하게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다양한 적용방안과 노력이 제기되는 것은 단기적 접근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현행의 연구 동향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관련된 기초연구나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업을 위한 적용방안 사례를 다룬 연구는 실시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및 위상을 비롯한 실천 과제를 현재의 딜레마 상황에서 모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 딜레마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의 장애인 평생

교육이 타당한 학문적 위상과 정체성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본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기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데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본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 주제의 취지에 따라서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적 딜레마와 관련된 구성요인을 각 영역별로 상호 분류하여 살펴보는 데 기초를 둔다. 가장 먼저, 연구 주제에 포함된 '융합적 딜레마'의 용어 의미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딜레마가 한 가지 특정 분야나 요인에 의해서만 초래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분야 및 요인이 상생하여 초래된다는 점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적 딜레마와 관련된 한 가지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분야 간 이해관계를 구체적인 근거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은 총 5가지의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분야의 융합 딜레마', '기관의 융합 딜레마', '자격의 융합 딜레마',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 '국가행정의 융합 딜레마'가 5가지 영역의 실제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문헌 분석을 비롯하여 전문가 회의에 의해 추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적 딜레마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주요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방법은 연구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딜레마를 다룬 선행 연구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에 의해 분석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나 요구 및 개선방안을 실시한 기초연구는 몇몇으로 현존하고 있었으나[4,7], 한국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구도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립해야 할 학문적 정체성과 제반 실천 방안을 딜레마의 맥락에서 다룬 선행 연구문헌은 거의 현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주제 및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논의 차원에서 그 방향성을 제기한 해당 선행 연구문헌[1-17]을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치를 두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런 문헌 분석의 실정을 감안해 연구 방법의 2차 절차로써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총 6회(1회 당 2시간 내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10인(교수요원)을 참여 집단으로 하였다. 이들은 상호 유사한 기초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면담이 아닌 상호 협업된 토의 과정을 통해 연구 내용에 반영될 구성요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의 과정에서 각자 제안한 의견 내용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

2. 본론

다음에서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적 딜레마를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분야의 융합 딜레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분야의 융합 딜레마는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영역으로써 학문적 정체성 및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으로 직결된다[2]. 현행의 동향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학의 범주에서 뿐 아니라 특수교육, 직업재활(재활상담), 사회복지 등의 분야까지 관여하려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5].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분야가 접근하려는 시도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6,8-10].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어느 특정 분야가 단독적으로 야기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여러 분야가 상생하여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융합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학의 범주에 속하기에 앞서 교육학의 한 가지 분야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평생교육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2,15]. 하지만, 평생교육학의 정체성이나 그 실행 기반을 살펴보면, 장애인 학습자가 갖는 특수성의 요소인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였으므로 학문적 정체성을 마련할 시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학' 간 정합성 자체가 완전하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2,9,11-15].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어느 특정 분야의 한 가지 범주 자체로만 그 학문적 위상 및 정체성을 논하기보다는 융합의 차원에 의하여 학문적 위상과 정체성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3]. 이에 대한 주요 접근은 우선적

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학의 범주와 밀접하다는 전제 조건 아래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학의 분야교육을 융합시키는 데에 있다[9,17].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분야는 다양하게 현존하고 있으나, 그 분야가 교육학의 일환이라면 특수교육학이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5,11,13,15].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융합학문으로써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의 기본 관점 및 전문성이 두루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학 뿐 아니라 특수교육학 역시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과 융합될 수 있는 내용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딜레마를 최소화시키고 타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달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교육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인접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나 직업재활(재활상담)이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차원에서 융합될 경우 의도치 않은 딜레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12]. 단적으로, 사회복지나 직업재활(재활상담) 분야는 엄밀히 말해서 교육 분야의 일환이기보다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해당하며[7],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학 범주에 속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가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못해 사회복지나 직업재활(재활상담) 분야가 현행에 적용하고 있는 전문역량 요소를 그대로 중복하여 반영할 소지가 많다[6,13-16]. 종합하면, 현행 동향에서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사회복지나 직업재활(재활상담) 등의 분야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차원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절차적 방안이 필수로 강구되어야 한다. 덧붙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교육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서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어상의 표면적 의미와 같이 '교육'이란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항시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의 범주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때, 장애인 평생교육의 본질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범주로 포함되는 데 다소 타당치 못한 사회복지나 직업재활(재활상담) 분야가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에 대하여 타당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분야의 융합 딜레마는 교육학의 기반 아래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 간 상생의 입장이 반영되어 해결될 수 있고, 보다 심도 있는 차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이 각각 융합되어야 할 구조적 모델과 구성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융합 로드맵이 실제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융합 분야의 딜레마는 평생교육학 범주에 속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차적으로 특수교육학과 상호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구축한 후 특수교육학과 성인기 형태의 평생교육학과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이 구축될 때 타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14].

2.2 기관의 융합 딜레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의 융합 딜레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이 명확화되어 있지 못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현행의 동향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상기해 보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대학, 전공과, 직업재활센터, 평생학습관 등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1,2,5,6-11]. 위의 기관들은 기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직접적으로 마련 및 실천해 오지 않다가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을 계기로 하여 그 지원체제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문성이나 업무와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하고 있다[13]. 결과적으로, 각 기관들은 개별적인 조직체계와 전문화된 운영 내용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지만 상호간의 협업이나 연계 맵을 구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16-17].

이상의 기관의 융합 딜레마는 앞서 고찰한 분야의 융합 딜레마에서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타당하게 정립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평생교육 수요에 의해 위 기관들에 접근하는 부분은 표면적이거나 물리적으로 평생교육을 보장받는 수준의 경향을 크게 가지며, 이에 따라 장애인이 성인기에 이르러 각 기관을 평생교육을 제공받는 차원 자체만으로 평생교육의 기회 여부를 논하게 되는 단편성에서 탈피할 수 없는 소지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3,8,12]. 다시 말해, 각 기관에서 평생교육의 내용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성인기 장애인을 수용하여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측면 자체만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논하게 되는

제한점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이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에 따라 기관별 변별적 활용이나 그 적용체제상의 로드맵이 타당하게 구축되는 것이 융합 기관의 딜레마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은 교육학의 범주에서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 간 융합을 일차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이차적으로 사회복지, 직업재활(재활상담)을 협업 분야로 수용하는 절차로써 정립될 수 있다[1-17].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각 기관들이 어떤 로드맵으로 협업과 연계를 전개해야 하는가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내용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화를 촉구하는 기반이 된다[3-7]. 장애인 평생교육을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단편적으로 일차적인 활용 기관을 특수학교 등의 정형적인 학교나 현행의 평생학습관 정도로 설정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측면을 포함한다[1,4,8-11]. 하지만, 특수학교나 평생학습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행의 구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역량을 실제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4].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마련 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변별성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의 범주에 있다면 교육과정의 차원은 교과교육(subject matter education)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타당하며, 교과교육을 구체화하는 영역은 현행의 평생교육학에서 구성한 교과교육의 구성체계를 반영하는 차원에 의해 직업능력개발교육, 기초문해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소양교육 등으로 반영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영역이 특수교육학의 범주와 같이 국어, 수학, 실과, 직업, 사회 등의 체제로 반영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 자체가 평생교육의 차원보다는 학령기 기반의 특수교육 차원을 연장하는 절차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의 범주에서 구성한 교과교육 영역과 융합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3-17].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과교육 구성체계가 현행의 평생교육학 범주에 직접적인 기초를 둔다고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특수교육학 범주의 교과교육 내용과 융합되는 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교육학 범주의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다[3,6,9,13,16]. 이상의 교육과정 기반이 현행의 교육 구도에서 각 기관별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선별하여 현행의 기관들과의 통합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이 적합하지만, 현행의 구도를 상기해 볼 경우 적합한 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8].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개발은 R&D 전문역량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장기적으로 기획·총괄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도해야 하며, 이를 감안할 때 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으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특수학교나 평생학습관 정도는 미흡한 경향이 많다[3,5,15].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국가 및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과 같은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조직과 활발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R&D 사업의 이행이 가능한 '대학(university)'의 주도적인 리더십이 융합 기관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이 될 필요가 있다[4,12,16,17]. 이를 통해, 대학을 기반으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특수학교, 전공과 등과의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융합 차원에서 교육 협업형 복지·기능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센터 등과의 협업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분야의 융합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융합 딜레마 역시 상호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적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적으로, 대학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연구적인 차원에서 개발하는 역량 뿐 아니라 지역의 장애인을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량까지 포함하는 기관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운영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위 운영모델에 대한 기초 근거로써 이상에서 논한 기관의 융합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 역시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3 자격의 융합 딜레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자격의 융합 딜레마는 앞서 고찰한 분야의 융합 딜레마와 기관의 융합 딜레마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명확히 마련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적으로 연구 및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의 조직화가 미흡할 경우 자격의 융합 딜레마는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를 다양한 배경과 입장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사실상 개정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계적 상황에 대해 문제 인식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된 근거로는 현행의 평생교육사가 장애인의 특수한 교육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장애'와 관련된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에 있다[4,6,9,11]. 이에 따라,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자격 부분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차원과 융합되어 그 적용방안을 구축하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분야 여부 자체와 융합되어 적용방안을 모색하려는 일례가 활발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와 관련된 분야가 각각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에 접근하려는 부분은 협업 절차에 앞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상의 타당성이 미흡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장애와 관련된 분야라고 할지라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현행의 자격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간 융합의 타당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2,11-16]. 단적인 예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점에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 기능을 확장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각 기관에서 기존에 진출한 전문가의 수행역량 및 자격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간 변별성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4,7-10]. 이는 곧 장애와 관련된 분야 자체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수행역량과 자격화 조건으로 융합될 수 없다는 가능성을 단적으로 시사하며, 결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대상과 자격화 제도에 수반하는 제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적 방안에 적합한 해당 분야인 평생교육학, 특수교육학 등에 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가 수립되지 못한 가운데 인접 분야가 주된 근거와 타당성의 제고 없이 활발히 접근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융합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 간 융합 측면에 토대해 있다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부분 역시 상호 일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2-12,14,16].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장애의 특수성을 전문 수행역량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장애인 평생교육 역시 평생교육학의 한 가지 세부 범주에 속하면서 평생교육학의 보편성을 따르기 때문에 현행의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자격화 제도와 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2,4,11,13]. 그리고 장애의 특수성을 교육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따르면서 분야교육의 범주에 의해 평생교육학과 동등한 범주에 속한 특수교육학의 관련 자격인 특수교사(직업특수교사 포함) 양성 및 자격화 제도와 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3]. 이런 절차적 방안이 고려되지 못한다면, 융합 자격의 딜레마는 관련 분야 및 전문인력 간의 전문성 중복이 지속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다[2,6-12]. 현행의 평생교육사와 특수교사의 자격화 제도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화 제도가 마련될 시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 이외에 타 장애 관련 분야 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타당하게 마련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 이외의 타 장애 관련 분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보조하거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교과교육에 대한 일부 수업을 담당하는 초빙강사를 연수 및 양성할 수 있는 민간자격 수준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를 정립시키는 기반을 얻을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은 개정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기반일 뿐 아니라 현행의 국가전문자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사와 특수교사의 자격화 제도와 융합되는 만큼 국가전문자격 범주로 정립되어야 하며, 타 장애 관련 분야와 자격 조건의 차원

에서 타당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단,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에 있어 평생교육학과 특수교육학 간의 타당한 관계성 정립 역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일례로, 평생교육학이나 특수교육학의 각 단일 입장에서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용 기반을 일정 기간에 걸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로 자격화 제도를 수립하는 부분 역시 경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5,8,11,13,16,17]. 종합하면, 융합 자격의 딜레마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자격 간 융합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기존 자격을 선정하는 방안 역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2.4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주요 방안과 관련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보편적으로 특정 장애 영역이 아닌 모든 장애 영역의 대상을 학습자로 구성한다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과 일반 평생교육 간의 관계성을 상기해 볼 경우 장애 영역의 고려는 두 분야 간의 관계성에 대한 융합 방향성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1,13]. 이와 같이, 장애 영역의 고려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과 일반 평생교육 간의 융합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5]. 그리고 이러한 제한점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학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특수교육학의 연장선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3-13]. 따라서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입장을 특별히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일반 평생교육과의 융합 타당성을 제고시켜 준다고 하겠다.

흔히,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장애 영역의 고려는 크게 지적장애 및 자폐 범주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 영역과 기타 감각장애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행될 수 있다[8]. 단적인 예로, 발달장애 학습자와 달리 감각장애 학습자는 일반 평생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평생교육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특수성과 변별화된 전문성을 크게 담보하지 못한다[3].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과의 변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종속되는 한계를 조장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는 이상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장애 영역을 우선순위의 차원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 일반 평생교육 분야에서 구성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과 상대적으로 고유한 변별성을 구축해야 한다[1,4,7].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교과교육 내용 기반을 일반 평생교육 분야와 변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발달장애의 장애 영역을 활발히 고려하였을 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16,17].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은 일반 평생교육 분야와 같이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교육 등의 영역에 구축되었을지라도 세부적인 학습 내용요소를 상호 변별적으로 구성해야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학령기 특수교육과정과 융합하여 직업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자립생활을 성취하는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아야 한다[6]. 이를 놓고 볼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과 기타 감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간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과 관련된 중점 사항은 다소 상대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이 일반 평생교육 분야와 역시 상대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8-11].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의 기반은 장애 영역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화된 차원을 반영하는 부분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장애 영역의 세부 분류를 통해 개별화된 차원 역시 반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장애 영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변별화하는 측면은 장애 영역이 융합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초래할 수 있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측면에서 고찰한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는 앞서 살펴본 분야의 융합 딜레마, 기관의 융합 딜레마, 자격의 융합 딜레마가 일정 부분 명확하게 정립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정착과 내실화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와 감각장애 등을 상호 분류하는 체제에 의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을 양·질적으로 활발히 마련해 나감에 따라 분야·기관·자격의 융합 딜레마에서 고려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의 수행역량이 보다 타당하게 심화 및 발전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얻을 수 있다[5,7,9,10,12,15,17]. 이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장애 영역의 융합 딜레마는 주요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2.5 국가행정의 융합 딜레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행정의 융합 딜레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인되는 요인에 해당하며[9], 국가행정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 방향성이나 보다 밀접하게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긴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영역의 융합 딜레마가 보다 타당하게 활발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의 역할 기능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제시될 수 있다[8-14].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가행정기관은 국가 및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인식해 볼 경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특수교육과 융합하여 모색할 필요성을 실제화시키려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17], 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교육의 실천적 성격과 맥락에 의해 활발히 모색하려는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대한 중요도를 표면적으로 인식해 볼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 정도로 간주할 수 있으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 방향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국가행정 조직에 속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관 및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관련 융합 딜레마가 초래될 수 있는 여부 역시 결정된다. 즉,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일차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 현행의 일반 평생교육 간 융합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를 비롯하여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과 성인기 중심의 평생교육 간 융합을 어떤 관점과 적용방안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는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딜레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9,12,16,17]. 이상의 부분은 국가행정의 상위 조직에 속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데 수월치 못하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타 유관기관과 어떤 체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나가는가에 따라 실제 대처될 수 있다[5-9].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여러 인·물적 자원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정책 및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절차는 중요하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과 이에 토대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에 따른 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타당화하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협업해야 할 유관기관은 현행의 실태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대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13-17]. 이는 국가행정의 조직에 속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대학을 기점으로 하여 타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 동향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과 관련된 자원이 활발히 개발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R&D 역량이 활발한 대학의 역할 기능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정책연구 및 각종 지역 연계 교육사업에 있어 유용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18]. 여러 이점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특수교육과 일반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동시에 담보한 여러 대학과 협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이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한 가지의 주요 사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여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연구 및 지역 연계 교육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대학과 협업을 하는 가운데 학문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개발된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에 대해 대학만을 대상으로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타 유관기관의 접근 가능 통로와 전문적인 역할 기능을 마련하여 협업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런 절차적인 방안은 궁극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및 실천적 성격과 맥락에 토대하여 대학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들을 어떤 구조체계 가운데 정책연구 및 지역 연계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기획할 수 있는 이점을 실제로 부여한다[2,3,5,7-12]. 세부적으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내실화의 명분 아래 대학과 장기적으로 정착된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조직 자체에서 대학 이외의 타 유관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학의 지원을 통해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동등한 범주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대학과 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촉구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7,18,19]. 결과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기반으로 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전체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국가행정의 융합 딜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다[20]. 후속적인 차원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종합적인 협업 체계도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행정의 융합 딜레마가 아닌 국가행정의 융합 이점이 다양한 근거로써 밝혀져야 하겠다.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의 융합 딜레마를 몇 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각 영역별로 고찰된 융합 딜레마는 해당 영역 안에서만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으로써가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연계적인 맥락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영역의 융합 딜레마가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영역의 융합 딜레마가 상생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전체 5가지 영역의 융합 딜레마를 고찰하였으며, 궁극적으로 5가지 영역의 융합 딜레마가 기능적으로 시사하는 핵심 사안에 의미를 두어 결론 및 고찰을 진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5가지 영역의 융합 딜레마는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와 근거를 갖긴 하지만, 첫 번째 영역의 융합 딜레마로 살펴본 분야의 융합 딜레마에서 일차적으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타당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으로부터 기관, 자격, 장애 영역, 국가행정 등의 융합 딜레마가 상생적으로 초래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특수교육학이 교육학의 한 가지 분야교육으로써 치료 중심의 의학 등의 분야와 고유하게 구분되는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유지하여 기관, 자격 등의 융합 딜레마를 크게 조장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현행의 동향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가 혼란스럽게 기여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기관, 자격, 장애 영역, 국가 행정 등은 융합 차원에서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교육 분야의 일환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가 실천적 협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학문적 정체성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동등성을 유지하는 측면은 다시 하여금 제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표면적으로 평생교육학 범주로써 보는 인식 역시 강하게 나타나지만, 일반 평생교육과 변별화(discrimination)되어야 할 장애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은 교육학의 실제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하지만, 융합의 기반에서 일반 평생교육학, 특수교육학 등의 세부 분야를 반영하는 관점 역시 정립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타당하게 정립될 경우 이후의 실천적 요소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장애 영역, 국가행정의 수월성은 크게 담보될 수 있다. 후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떤 근거와 배경 속에서 복지 분야와 상호 변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의 이론적 실제를 다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과 본 연구의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상기해 볼 때 결론적으로 대학의 역할 기능과 기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평생교육학의 세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학의 범주 자체에서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융합 기반으로 정립될 필요가 중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21,22]. 특별히,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역시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의 융합 기반은 아주 중요하다. 이

상의 측면과 관련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 기능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대학의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가 활발히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대학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학과 단위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에 의해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정체성의 정립에 있어 일차적인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각종 정책연구 및 지역연계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반과 지역 연계 교육 사업의 범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보편적 원리 차원에서 볼 때에도 특수교육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행계획(reverse planning)에 중점을 두어 실천되어야 하므로 대학의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가 혁신의 입장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하여 기여할 필요가 많다[23-26].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평생교육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부분은 암묵적으로 전제된 조건이지만, 이와 달리 특수교육학 범주와의 융합 부분은 암묵적이기보다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조건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학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의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학과 조직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실천 요소를 융합시킬 수 있는 절차적 운영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다룬 총 5가지의 영역에 대한 융합 딜레마를 대학의 「특수교육과(직업특수교육과 포함)」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1] Y. J. Kim. (2018a).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 「Fostering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7(1)*, 187-213.

[2] Y. J. Kim & Y. S. Jung. (2018). A Study on the Practical Integration Model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Lifelong Education : Directio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2)*, 87-111.

[3] Y. J. Kim & J. Y. Kim. (2018a). Plan for an Integration System based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o Foster Cooking Startup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1)*, 23-58.

[4] Y. J. Kim. (2017a).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ial Workers Among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6(2)*, 79-111.

[5] Y. J. Kim. (2017b). Establishment Plan o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Center Organization and Curriculum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Disabled.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3), 87-123.

[6] Y. J. Kim & M. A. Do. (2017). Development of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1(4)*, 61-100.

[7] Y. J. Kim. (2015). A Study on Applications of School Age Evidence-based Transition Education Practice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from Perspectives of Lifelong Learning.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137-166.

[8] Y. J. Kim. (2017c). The Effects of Independence Life Training through Collaboration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in Majoring Course on the Wash Staff Employment Task Skill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3)*, 67-90.

[9] Y. J. Kim & J. H. Jang. (2017). The Effects of In-Basket based Connection Learning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through Workplace Instruction of Employer on Cooking Skills for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4)*, 121-141.

[10] Y. J. Kim. (2017d). Operation Pla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7(2)*, 173-198.

[11] Y. J. Kim. (2006). An Analysis of National Lifelong Learning Policy : Focus on the Annual Plan for 2006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1)*, 145-168.

[12] Y. J. Kim & M. A. Do. (2014a). A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ask on the School Ag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Future Adulthoo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3)*, 39-68.

[13] Y. J. Kim & M. A. Do. (2014b). A Study on the Integrated Instruction Approach of Task Skills and Self-Management Skills in term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Adulthood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3)*, 291-330.

[14] H. Y. Kim & D. Y. KO. (2015).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on Life-Education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 Other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2)*, 43-68.

[15] D. S. Kang & J. S. Shin. (2015). A Basic Study on the Career-Based Lifelong Education Model for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1)*, 1-22.

[16] G. H. Choi. (2014). The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Code of Professional Ethics. *Th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4(3)*, 105-127.

[17] Y. J. Kim. (2017e). Reality Factors and Improvement Pla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35(2)*, 1-14.

[18] Y. J. Kim & J. Y. Kim. (2018b). A study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s for Lifelong Education (Vo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351-359.

[19] J. Y. Kim. (2016). A Study on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1)*, 65-92.

[20] J. S. Kwon & Y. S. Jung. (2015).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in Local Learning Poli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6)*, 305-315.

[21] Y. J. Kim & K. S. Kang. (2018a). Restructuring Pla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System from the Convergenc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40(8)*, 365-402.

[22] Y. J. Kim & K. S. Kang. (2018b). Lifelong Education Integrated Approach to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in terms of Qualifi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 9(6)*, 603-618.

[23] Y. J. Kim & K. S. Kang. (2018c). The Innovation Challenges of「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with Convergence o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167-182.

[24] Y. J. Kim & K. S. Kang. (2018d). Operation Plan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Center Commercialization to Revitalize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40(6)*, 501-540.

[25] Y. J. Kim & K. S. Kang. (2018e). Integration Plan of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Current Programs for Lifelong Educators. *The Journal of Integration Curriculum, 12(3)*, 97-123.

[26] Y. J. Kim. (2018b). The Effects of University Education Extracurricular based Talent Dona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on the Cooking Skills for High School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8(1)*, 81-94.

김 영 준(Kim, Young Jun) [정회원]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특수교육학사)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2016년 8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박사
・관심분야 : 직업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E-Mail : helperman20@hanmail.net

강 경 숙(Kang, Kyung Sook) [정회원]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문학사)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2007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관심분야 : 통합교육, 융복합교육
・E-Mail : grace86@wku.ac.kr